

# 출판에 불어온 中國大陸風

## ‘서해안 波高’ 따라 높아진 關心 반영

이른바 ‘서해안시대’라 하여 중공과의 관계 개선 및 직접교역 전망이 밝아지면서 출판계에도 중공붐이 일고 있다. 중공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감에 따라 중공관계 서적이 활발히 출판되고 있으며, 시중 대형서점들은 특설코너를 설치하는 등, 앞으로의 ‘서해안 시대’를 성급히 예견하고 있다.

### 국내 해금조치도 한몫

과거 중국은 동양의 중추로서, 오늘날에는 방대한 영토, 풍부한 자원, 많은 인구 등으로 국제정치·경제에 있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대로부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온 ‘친근한 나라’임에도, 49년 중국의 공산화 이후 이데올로기의 문제로 인해 중국의 내부 세계를 알 수 있는 서적의 출판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78년 중공의 경제개혁 이후 국내에서도 중공을 알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적으로 일기 시작했고, 여기에 그동안 정부의 판금조치에 의해 묶여 있던 일부 중공관계서적이 해금되면서 본격적인 현대중국관계 서적출판에 활력을 더해주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중국관계 서적은 공산혁명 이후 중국 내부세계의 이해를 위한 것과 어학학습교재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

중국어교재의 경우 「즐거운 중국어 35일간」 「중국어작문」 등 약 60종에 이르고 있으며, 테이프를 첨부한 교재만도 20여종에 이르고 있다. 이 중에는 「貿易중국어」 「한·중 무역회화」 「北京商務중국어」 「여행중국어 회화」 등, 앞으로의 중국무역의 실전을 위한 책도 포함되어 있다. 최근에는 문서교류에 대비한 「중국어 편지서식 편람」 「중국어 무역통신문」도 출판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앞으로도 중국어 학습교재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함께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소 중국어사전편찬실에서 약 10년째 편찬되고 있는 「중국어사전」이 완성된다면 중국어 학습이 좀더 수월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하나, 중국을 이해하는데에 중국의 말과 글을 익히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오랜 전통과 역사를 갖고 있는 중국의 정치, 경제, 문화 등 내부세계에 대한 이해이다.

중국관계 서적의 출판은 국제정치·경제

정세 속에서의 중공의 변화 및 국내의 변화와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지난 40여년간의 이데올로기적 단절로 ‘竹의 장막’ 중공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서는 거의 출판이 금기시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70년대 이전까지는 「중국고대철학사」 「중국문화사」 등 중국의 고대철학과 전통문화에 관한 것이 주종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상은 70년대 전반에도 계속되나, 한편으로는 「중국근대사연구」 「중국근대사론」 「중국공산당사」 등 중국의 근대사에 대한 연구서가 눈에 띄기 시작한다. 이와함께 중국 현지 학자 혹은 외국인의 중국사회·문화 전반에 관한 저서도 번역, 소개되었다.

79년 美中교역을 계기로 중국관계 출판물은 급증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美·日·中의 중국연구서의 활발한 출판에 발맞추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저·역서들이 출판된 것으로 이해된다. 여기에는 「毛澤東」 「주은래와 중공혁명」 「鄧小平」 등 혁명투쟁의 영웅적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 사상을 통해 중국역사를 설명하는 형식의 책들이 포함된다. 이 중 「毛澤東」은 아직까지도 모택동의 어록이 중국헌법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의 정치사상이 곧 중국공산주의의 기초가 되었다는 점에서 이후의 다양한 ‘모택동연구’의 기본서가 된 것으로 보인다.

### 혁명을 중심으로 하는 책이 주종

80년대 이후, 중국공산혁명을 기점으로 한 중국의 근·현대사에 관한 서적출판이 증가한다. 당시 출판된 책들을 살펴보면, 우선 정치·경제·문화·문학 등 전반에 걸쳐 혁명을 중심으로 한 저역서와 「모택동의 국제정치사상」 「周恩來」 「陳獨秀評傳」 등 혁명 주도인물들을 부각시키는 서적들이 늘어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 예로, 이영희교수의 「中國白書」는 중국 현대사의 격동기라 할 수 있는 1945년 전후의 중국대륙정세에 관한 미국무성의 의회보고서를 편역한 책으로 중국관계의 대표도서로 손꼽힌다. 또한 「周恩來」 「陳獨秀評傳」 등은 객관적 시각에서 서양인이 풍부한 자료를 토대로 중국혁명상황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자들의 흥미를 끌었다.

이밖에도 80년대에는 중국의 전통유산에 대한 성찰과 중국이 공산화되기까지의 역사



중국관계 책을 찾는 사람이 늘어가자, 시중의 대형서점들은 특설코너를 마련해 놓고 있다.

적 상황 및 국제정세, 그리고 오늘의 중공이 지향하는 정치·경제·군사·외교문제 등을 학문적 이론으로 분석한 책들이 대거 출판되었다. 「현대중국의 이해」 「중국현대사의 재조명」 「현대중국론」 등의 책들은 역사개설서적인 성격을 벗어나 중공의 사회·경제적인 측면을 명확하게 해명해주고 있다. 중국혁명을 다룬 책들은 앞서 말한 ‘혁명지도자들의 전기’ 이외에도 「중국혁명의 해부」 「중국혁명의 전략과 노선」 「중국혁명의 전개과정」 등 중국혁명의 정확한 인식을 위해 혁명사를 포괄적으로 서술한 것에서부터 「중국혁명과 농민민주주의」 「중국노동운동사」 「중국여성해방운동」까지 그 내용이 다양하다.

정치적 변혁과 더불어 중국의 경제개방에 따라 「중공경제론」 「중공경제 및 무역」 「중국근현대경제사」 등 중공경제의 특성과 발전과정, 성장과 변동을 연구한 분석서들도 활발히 출판되었다. 세계경제에서 중요한 시장으로 부각되고 있는 중공의 개방정책은 「혁명과 중국의 대외정책」 「중국·미국관계」 등 외교관계 서적의 다양화도 가져오게 된다.

### 현대문학 작품도 활발히 출간

중공에 대한 국제적 관심의 증대에 따른 중국관계 서적출판의 새바람은 사회과학분야만이 아니라 문학에도 불어 「중국근대소설사」

「중국현대문학론」 등의 문학이론서와 대표작품들이 출판되었다. 문학작품으로는 「家」 「기빠웃는 불꽃이여」 「織身」 「루어 투어 시앙쓰」 「상흔」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소설에서는 사회과학서적류가 특정지도자들의 사상에 치우쳐 차차ť 간과하기 쉬운 중국인들의 사고방식이나 생활 등을 엿볼 수 있다. 근래에는 중공의 ‘사랑’과 ‘자유’를 갈망하는 풍조를 직접 보고 적은 「중공기행」 「중공대륙에 사랑을 심고」 「북경특파원」 등이 출판되어, 중국인의 생활이나 의식 등의 묘사를 통해 새로운 중국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관계서적의 출판은 전통 소개의 차원에서 실세계의 연구로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다. 이것은 중공과의 관계개선, 직접교류를 앞두고 중국을 이해한다는 의미에서, 또한 국제정치의 역학구조 속에서 우리와 미묘한 관계인 중국을 더욱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의미에서도 중요한 과제이다.

중국의 실체는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결코 이해될 수 없다. 따라서 각 분야의 고른 출판—중공의 실제적인 권력구조, 정책, 언어가 다양하고도 심도깊게 연구, 출판되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 민옥경 기자